

# 7남매 보살행 '빈자의 일등'

## 소적새 마을에 3천만원 보시 모두 불교대학 졸업...신행 열심

어느 일곱 남매와 며느리의 깊은 불심,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가 올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침내 연꽃으로 피어났다.

대구에 사는 안순자 보살(48)은 큰 언니(62)와 함께 최근 소적새 마을을 찾아 3천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지를 전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를 두려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는 어머니와 며느리, 7남매의 '부처님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다.

안보살의 형제들은 위로 언니 넷과 오빠 하나, 그리고 막내 동생을 합해 모두 7명. 이들 일곱 남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48살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 이복순씨는 이 무렵부터 9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경전을 외고 기도를 했다. 어떤 날엔 며칠간 삼천배 기도로 밤을 밝히기도 하고, 또 몇 주나 몇 달씩 절에 가서 무

보수로 공양주를 하기도 했다. 일곱 남매는 모두 어머니를 닮았다. 이곳저곳의 사찰을 찾아다니고, 마을만 가면 아무때나 절에 찾아가 삼천배를 올리는 것이 그들이다. 사찰이나 지역에서 남을 돕는 행사가 있으면 참가했다가는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상(相)내지 않는 모습까지도 빼 닮았다. 여기에 안씨를 비롯한 일곱 남매와 율체가 모두 불교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대단하다.

그중 대우 보현사 신도인 큰언니(62)의 불심은 가장 절절하다. 10여 년전 육상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몇 백번인지도 모를 정도의 삼천배 기도를 통해 지금은 발일도 거뜬히 해낸다. 둘째(58)와 셋째(53) 언니, 그리고 오빠(56) 역시 큰 언니 못지않게 신행생활에 열심이다. 삼천배는 기본이고 일년에 최소 한 두 차례 꼭 100일 기도를 한다. 웬만한 경전은 꿰고 있을 정도로 공부도 열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을 본받은 일곱 남매는 저마다 독특한 신행생활을 통해 불심을 가꿔가고 있다. 사진은 안순자씨 결혼한 직후인 79년에 여섯 자매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모습.

심이다. 막내(46)는 사경에 관한 한 형제들 중 제일이다. 한 자 쓰고 108배를 올리는 식으로 일년에 두 차례 100일 기도를 한다. 안씨의 율체는 20년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 도반. 시집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 교도였으나 시어머니의 불심에 감동해 불교신자가 됐다. 이번에 소적새 마을에 기탁한 3천만원은 94년 타계한 어머니 이씨가 일생동안 한문두루 절약해

돈은 재산 1천5백만원에 자식들이 그만둘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장에인을 위해 쓰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7남매는 6년이 지난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대로 따랐다. 풍족하게 사는 삶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불심에다 자신들의 정성을 더 모아 3천만원을 선뜻 소적새마을에 내놓은 이들 일곱 남매의 불심은 '빈자의 일등'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봉은사 11일 '야간거리축제'

## 경내 미륵광장-봉은로 5천여 불자 참여할듯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단위 사찰로는 처음으로 야간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봉은사는 11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봉은사 앞 도로와 경내 미륵광장에서 5천여 명의 불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기는 각종 문화축제를 벌인다.

이날 벌어지는 축제는 불꽃놀이와 무대특수조명 등을 연출하는 '천년의 빛'을 주제로 한 식전 행사에 이어 무용단 퍼포먼스와 부처님의 강림을 표현한 레이저 쇼, 합창단 공연 등의 1부 행사와 참석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타임캡슐에 넣어 소원을 빌면서는 취지식, 스님 드림팅과 연예인의 출연 기·기마전·닭싸움, TV 프로그램인 '출발 동서남북'을 응용한 불교상식 게임, 시민 노래자랑과

## 댄스 페스티벌 등의 2부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부처님 강림을 표현하는 레이저 쇼는 대형 연꽃 애드벌룬 2개 사이로 설치된 스크린이 밤하늘에서 영상을 받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며, 이어 무대 중앙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온 연꽃 모양의 지구본이 열리면서 동자승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첨단기술에 부처님 오신 뜻을 담은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한쪽 부분에 인조 벽을 설치해 불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행사와 찬불가 경연대회, 소규모의 록 페스티벌 등의 거리 이벤트 행사를 통해 10대들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박근직 기획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02)517-0149

한명우 기자

## 뉴스 & 뉴스

###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최화)와 불교장기수후회회(상임대표 성관)는 37개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서명운동을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조건없는 원거주지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7일 국제청 앞에서 열린 제2회 불교인권문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두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김해 동림사 천불전 전소



김해 동림사(조식 화엄) 천불전이 4월28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돼 경찰이 조사를 나섰다.

이 화재로 천불전에 봉안돼 있던 1천7백여기의 청동 지장보살상이 훼손되었고 목조 건물인 30여평의 천불전이 전소되는 등 경찰 추정 1억원, 사찰 추정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김해경찰서는 "화재 감시 결과 전기 누전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림사에 상주하는 보살은 "화재 발생 당일 참배객과 대화를 하는 도중 갑자기 천불전에서 불길이 솟았다"며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해=천미희 기자

### 최정수 직업은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 중 종교인이 최정수를 누리는 반면 언론인은 가장 단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김종인(한국보건의학회장) 교수 가 1963년부터 지난 2월까지 37년간 주요 일간지 부음기사에 난 사회저명인사 2,142명을 대상으로 조사, 2일 발표한 '직업별 평균수명에 대한 조사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 사회저명인사의 직업별 평균 수명은 종교인이 79세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인은 65세로 제일 낮았다. 김재경 기자

### 생명나눔실천회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4월 29일 경기 광명시 금강정사 청년회와 공동으로 철산동에서 '전국민 1인 1장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200여명의 일반시민들이 장기기증을 서약했으며, 금강정사 스님들과 신도회, 학회회 등도 참여했다. 한명우 기자

# 고양 극락사 '추모관' 8월 완공

## 시립화장장에 국내 첫 사설납골당

경기 고양시 태고종 극락사(주지 상근)가 8월말 완공예정인 건립중인 '벽제 정안공원 추모관'이 시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음으로 시립 화장장에 들어서는 국내 최초의 사설납골당으로 기록됐다.

시립 벽제화장장에 들어서는 정안공원 추모관은 벽제화장장과 불과 1백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화장 후 안치가 편리한데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 지상 2층에 연건평 2천여평 규모로 모두 1만여기를 수용할 수 있다.

고인의 생존시 모습과 육상, 업적 등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최고급 자재와 향은·향습 자동장치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1천여평 규모의 주차장과 각종 휴게·편의시설 등도 설치된다. 납골당 1기당 가격은 250만원. (0344)969-9003

한명우 기자

할 수 있다. 고인의 생존시 모습과 육상, 업적 등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최고급 자재와 향은·향습 자동장치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1천여평 규모의 주차장과 각종 휴게·편의시설 등도 설치된다. 납골당 1기당 가격은 250만원. (0344)969-9003

한명우 기자

# '폐기종' 앓는 네살바기 "수술해야 산대요"



지운이의 병명은 '선천성 배엽성 폐기종'. 지난 3월 갑자기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심한 독감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온 지운이는 수술밖에 살 길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비. 엄마와 단칸방에서 단 둘이 사는 형편이라 수술비와 치료비 600여만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운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는 병간호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생활마저 어려워지는 등 이래저래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되살리고 지운이를 돕기 위한 '이웃을 위한 등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02)732-2183

'엄마! 숨을 쉬고 싶어요' 네살바기 지운이가 가녀린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지운이의 병명은 '선천성 배엽성 폐기종'. 지난 3월 갑자기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심한 독감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온 지운이는 수술밖에 살 길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비. 엄마와 단칸방에서 단 둘이 사는 형편이라 수술비와 치료비 600여만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운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는 병간호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생활마저 어려워지는 등 이래저래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되살리고 지운이를 돕기 위한 '이웃을 위한 등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02)732-2183

한명우 기자

# 인터넷 불교대학 개강 "불전강독 합니다"



◇인터넷 불교대학은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노트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불교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됐다.

5월2일 오픈한 '인터넷불교대학' (책임 교수 최봉수, IBC/Internet Buddhist College, www.buddhistweb.com)은 교계 최초로 동영상과 강의노트를 요약해 보여주는 교육시스템으로 다른 원격강의 사이트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불교대학이 운영하는 원격강의 시스템은 동영상으로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좌측에 강의노트가 작동돼 입체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강의노트만 따로 볼 수 있는 '슬라이드 보기' 코너와 강의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받기 코너가 개설돼 있

## 어 동영상 보기가 힘든 이들에게 좀더 쉽게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불교대학은 이용자가 동영상과 강의내용 요약본, 자료받기 등을 통한 강의 노트 등 3원 입체교육을 구현하고 수준높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붓다의 생애, 불교입문, 초기불교개론, 부파불교 비판, 대승불교연구 등의 불교학 강의와 <능엄경> (화엄경) 등 불전강독을 오픈했다.

인터넷불교대학에서는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불교교리·경전 강좌 동영상 원격강의 외에도 불교전사 출판, 불교사전 검색서비스, 불교문화재 순례프로그램,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 불교전문 언어 원격강의, 관련 교리 정점 문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 관문사-흥천사 자비의 경노잔치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와 보문종 군산 흥천사(주지 지환)는 3일과 7일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일을 맞아 경노잔치를 각각 개최했다. 서초구내 노인 5백여명이 동참한 관문사 경노잔치에서 노인들은 관문사에서 준비한 점심을 들며 가수 김홍국 머무와 다래 장미화 국악인 김병순씨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덕룡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운덕 주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경노호친사상을 고양시키고 부처님 오신 뜻을 되살리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사찰과 불자들이 경노호친사상을 발전시키

## 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로잔치를 연 흥천사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백여명을 초청하여 점심과 과일 음료수 떡 등을 대접하고 국악공연과 흥천사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무용, 노인들의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특히 흥천사는 신도들에게 미리 '자비의 코끼리' 저금통 1천개를 나누어주고 자발적으로 모여진 저금통으로 경로잔치가 베풀어져 한층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경숙 기자

## 정각선원 개원 5돌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국회 정각선원의 개원 5주년을 맞아 철산 탄공스님(전 문경 사불산 대승사 주지) 초청법회를 4월28일 정각선원에서 봉행했다.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을 겸해 거행된 이날 법회에서 탄공스님은 "남보다 나이지려면 몇시간이고 더 노력하고, 죽을 힘까지 다 해서 공부해야 깨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우리 부처님!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뜻깊은 이날, 남과 북의 불자대중은 동시에 법회를 열고 번중을 울리며 통일의 서원 가득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남과 북의 공존·공영·공리를 보장하고 민족성원 누구나 다 소원하는 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불자대중이 희망하는 최상의 통일방안입니다. 애국애족의 가치아래 온 민족이 한결 화합하여 서로 협력하고 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는 것만이 우리 불자대중이 바라는 겨레의 화목한 모습입니다. 남과 북의 전체 불자대중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한 실천행으로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충실하여 민족의 화합,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땅 위에 불국정토, 통일조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외칩니다. 한마음 함께 기울여 통일을 앞당겨오고 통일된 이 땅에서 길이 함께 살아야 할 형제법우들이기에 우리 가는 통일의 길이 험난하다 해도 이 서원 굳게 지니 거이 통일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부처님, 남과 북의 불자대중의 굳센 서원 길이 성취하시어 우리 가는 앞길에 불은을 내려주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 잠시라도 멈춤이 없도록 부처님 가호가 있으시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남북불교대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서 정 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 박 태 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봉축위원: 홍인곡, 전운덕, 김성초, 이홍과, 김혜정, 정혜일, 배일공, 총지화, 송무진, 전남정, 주운경, 정법륜, 손금광, 방보명, 이대화, 장봉암, 한학봉, 이청봉, 윤일오, 전석봉, 김해국, 이월정, 신명안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 봉 환 동해권 중심대학으로 부상합니다 축

■ 설립취지 ■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념과 대한불교진각종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대학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인류에 헌신할 지역경비의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

■ 교육목적 ■  
21세기 선진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적 인재를 육성하며, 문화발전과 과학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 교육목표 ■  
◎ 자주적 지성인 육성  
◎ 창조적 문화인 육성  
◎ 개방적 지역인 육성

위 덕 대 학 교  
총 장 손 제 석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  
TEL (0561) 760-1053 FAX (0561)760-1059  
나우누리 홍보광장 : go uiduk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uiduk.ac.kr